

노사발전재단, '광역형 해운업 특화 서비스'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한국해운조합 등 3개 기관과 해운산업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협업 추진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정태길)와 4월 14일(화) 오후 1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운산업 발전과 중장년 고용 활성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 역량을 연계하여 호남권·부산권·수도권의 3권역에 걸쳐 해운산업 고용을 확대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운업 일자리 수요 발굴 및 기업 연계 지원 △중장년 대상 전문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이다. 또한 광역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로 분산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5년 12월 5일 노사발전재단과 한달빛(대전·대구·광주)보건연합대학이 체결한 「노사발전재단-한달빛보건연합대학, 보건·서비스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광역형 중장년 고용지원 모델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호남권(목포·군산·광주·제주)에서는 4월 20일(월)부터 예부선 부원 양성을 위한 직무설명회를 운영하고, 영남권(부산)에서는 4월 28일 해운업 채용박람회인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인천)에서는 하반기 해기사 양성을 위한 직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중장년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서비스를 벗어나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을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광역형 특화서비스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가 지역 제약 없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노사발전재단 기업고용지원팀 | 책임자 | 팀 장 | 박근우 (02-6021-1153) |
| | | 담당자 | 책임컨설턴트 | 임은경 (02-6021-1477) |

